

# 손자녀 양육 참여 노인의 활동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의 생성감과 가족 지지를 중심으로

조 운 주  
(성신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내적 변인으로는 노인의 생성감을, 외적 환경의 영향 변인으로는 가족의 지지를 중심으로 조부모의 양육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손자녀를 돌본 지 3개월 이상되는 60세 이상의 여성 노인 103명이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대일 면접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부모 양육 참여 노인의 생성감과 가족의 지지, 활동 만족도 수준은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손자녀 양육 참여 노인의 생성감과 활동 만족도와의 관계, 손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의 지지와 활동 만족도와의 관계는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 셋째, 손자녀 양육 참여 노인의 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노인의 경제적 상태와 개인주의적 생성감, 가족의 도구적 지지와 금전적 지지였다. 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으로 생성감 발현과 지지 제공의 중요성, 양육 활동의 가치 인정과 세대간 통합 기회로의 활용 등을 언급하였다.

주요용어: 손자녀 양육, 노인의 생성감, 가족의 지지, 양육 활동 만족도

이 논문은 2012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투고일: 2012.3.12    ■ 수정일: 2012.6.13    ■ 게재확정일: 2012.6.26

## I. 서론

몇 년전 우리나라 가입 여성의 출산율이 1.08명을 기록하여 일명 ‘1.08의 쇼크’를 경험한 이래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저출산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의 산아 제한 정책 실패에 원인을 돌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육아의 어려움을 주요 이유로 언급한다. 자녀 한 명을 18세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4억에서 4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 조사에서처럼(한국노동연구원, 2011),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은 계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기혼 여성의 취업 이유 중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보다 선행된 어려움은 보육 시설의 부족이다. 이에 관련된 법규에서 직장 보육 시설 설치를 명문화 하였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업 여성의 수는 미미하다. 또한 여러 형태의 보육 기관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양질의 신뢰할 수 있는 시설이나 가장 시급한 영아 전문 보육 시설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공적 보육이 발전한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나 친인척이 양육을 담당하는 사적 보육에 의존하여 왔다. 이로 인해 공적인 보육의 발전이 더디게 된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보육 시설의 부족을 보완하는 일익의 역할을 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될 때까지, 그리고 기관에 재원한다고 해도 조부모가 자녀 대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다수였다. 일례로 삼성경제연구소(2010)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64.5%가 자녀 양육을 조부모에게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12). 하지만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을 엄연한 생산적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육아를 담당할 혈육이외의 타인을 고용할 경우 지불하는 금액을 고려하면 조부모의 양육 참여는 금전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양육 관련 연구들은 참여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책임감 없는 즐거움으로만 생각하여 긍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둔 것도 있지만(서병선, 1995; 한혜자 외, 2001), 다수의 연구 결과들은 명암이 엇갈리는 것으로 요약된다(Butron & Devries, 1992; Minkler et al., 1992). 왜냐하면 영유아를 돌보는 것은 노부모의 발달 단계상 때에 맞지 않은(off-time) 역할 수행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많은 노동

력이 요구되는 활동이나 체력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노년기와 겹쳐 신체 질환을 유발한 다거나, 사고 활동 제한은 조부모로 하여금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게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와 육아 방식에서 이견이 생기면 심각한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여러 측면에서 조부모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서현, 2009; 최혜지, 2009; Hayslip et al., 1998; Jendrick, 1994; Minkler & Roe, 1996).

이 때 부정적인 결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변인은 사회적 지지로 다양한 스트레스원(stressor)으로부터의 영향을 완충하거나 매개하였다. 특히 인간이 일생에 걸쳐 여러 유형의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근거리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관계라는 점에서 다른 사회적 관계보다 우선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의미있는 타자인 가족원에게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활동에 대한 성과나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만족도가 높았다(강유진, 2011; 권인수, 2000; 최혜지, 2006; Aquino et al., 1996). 이처럼 지지를 지지원으로서 구조적인 측면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세분화한다면 주로 정서적, 도구적, 금전적 지지로 구분된다. 제공된 지지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지지의 적합도가 맞지 않을 경우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이와 같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변인과 함께 노인이 손자녀 양육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내적 변인으로 생성감(generativity)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생산성(productivity) 뿐 아니라 창조성(creativity)을 포함하는 그 이상의 개념으로 다음 세대를 낳고 키우며 보살피는 것이며, 타인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욕구라 정의된다(Erikson, 1963). 그리고 이것이 본능적인 충동이나 욕구, 동기로 개인차를 보이지만 발달상의 단계여서 적응 또는 성숙의 지표로서 언급된다. 다시 말하면 생성감은 여러 가지 활동과 결과 및 개인과 사회의 연결 고리가 되며 노년기에는 grand-generativity를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내적인 동인으로 작용하는 주요한 변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연관된 국내의 연구는 소수여서 오경석(2010)의 연구가 보고되는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개 조손 가족을 위주로 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았다(김혜선, 2005; 최혜지, 2009).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기본적으로 수반하고 비자발적으로 양육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대상의 특수성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한 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지지를 고려한 연구들이 보고되기는 하나(최혜지, 2006), 노인의 내적인 기제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취업 증가나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돌봄의 중요성이 존재하나 사적 영역에서의 돌봄 노동에 대한 평가는 충분하지 않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손자녀 양육의 가치를 공론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취업 중인 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내적 변인으로는 노인의 생성감을, 환경의 외적인 영향 변인으로는 가족의 지지를 관심 변인으로 선정하여 조부모의 양육 참여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에게 활동 만족도를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상의 목적을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손자녀 양육 참여 노인의 생성감과 가족의 지지, 활동 만족도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노인의 생성감 및 가족의 지지와 노인의 활동 만족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노인의 생성감과 가족의 지지가 노인의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손자녀 양육

#### 가. 손자녀 양육의 유형

대체로 조부모 양육은 조모 양육과 동의어로 통용되는데, 조부모가 양육에 관여하게 되는 상황을 국내외간 비교해 볼 때 다소 다르다(Kivett, 1985). 외국에서는 조부모의 양육이 모든 사회 계층에서 나타나나 특히 흑인 가정에 많으며, 자녀의 이혼이나 약물

중독·알코올 중독·학대·유기 등 부정적인 생활 사건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자녀의 가족 해체로 인해 조손 가족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가 취업하여 양육을 맡게 되는 경우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 중류 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 역할 유형을 조사한 Neugarten과 Weinstein(1968)은 5가지로 구분하였다. 공식형(formal)이란 ‘손자녀 양육 방법 등은 자녀에게 맡기고 자신은 주어진 조부모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며, 기쁨 추구형(fun-seeker)은 ‘여가 시간에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낙으로 삼는 유형’이다. 한편 대리 부모 유형(surrogate parents)은 ‘부모를 대신하여 육아와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며 지혜의 원천형(reservoir of family wisdom)은 ‘가족내의 최고 권위를 유지하고 젊은 세대의 복종을 요구하며 가족내 지혜의 원천임을 내세우는 유형’을 의미한다. 그리고 원거리형(distant)은 ‘공식적인 가족 모임외에는 별로 가족 관계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Robertson(1977)도 125명의 조모를 대상으로 조모의 역할 유형을 규명하였는데, 첫째, ‘원거리형(remote type)’은 손자녀에 연연하지 않으며 조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규범도 거의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조부모 역할도 별로 수행하지 않는다. 둘째, ‘조화형(apportioned type)’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인 규범을 인식하며 손자녀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한다. 셋째, ‘상징형(symbolic type)’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조부모의 역할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인식하지만 손자녀에게 개인적으로 애착을 느끼지 않으며 행동도 하지 않는다. 넷째, ‘개인적 유형(individualized type)’은 사회적인 규범에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손자녀와 자주,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개인적인 의미를 강조한다.

이처럼 상기한 유형 중 본 연구의 관심사인 손자녀 양육은 ‘대리 부모 유형’ 또는 ‘조화형’이나 ‘개인적 유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정의를 참고하여 손자녀 양육을 ‘취업 중인 자녀를 대신하여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활동’으로 조작적인 정의를 하고자 한다.

## 나. 손자녀 양육에 관한 선행 연구

이전에는 조부모가 성인 자녀와 동거하면서 부모 역할의 보조자로서 손자녀 양육에 참여했던 것이 요즘에는 조부모가 이를 전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들이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적응상의 곤란함을 경험하기 쉽다. 따라서 이 경험에 대한 평가는 양기적이다. Minkler 외(1992)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70%가 이 역할을 가치있는 일로 느끼지만 기분이 저하되고 지쳐 계속하기 어려운 느낌도 동시에 든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Butron & Devries, 1992)에서도 손자녀 양육을 도전과 보상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신체적으로 고되고 장기간의 돌봄을 필요로 하며, 전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할애해야 한다는 점은 도전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시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적기로 보고 손자녀가 애정 표현을 해 준다는 점은 보상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Hayslip 외(1998)는 손자녀 양육이 조모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손자녀 양육에 많이 관여할수록 조모의 사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식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자신의 무능력 등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조모들은 양육 참여로 인해 사회 생활에 있어 제약을 받고 친구들로부터 고립된다고 토로하였다(Jendrick, 1994). Minkler와 Roe(1996)의 연구에서도 조모가 당면하는 어려움으로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정부 지원의 부족, 사회적 고립감을 지적하였다.

국내의 연구 결과도 이와 유사한데 긍정적인 내용이 좀 더 많이 나타난 서병선(1995)의 연구에서는 취업한 딸이나 며느리가 있는 여성 노인이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 조모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다. 왜냐하면 수행 과정에서 조모와 손자녀간에 애착 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노년기의 정서적, 심리적 소외감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모와 자녀간 관계가 손자녀 양육을 매개로 훨씬 좋아질 뿐 아니라 노인이 여전히 자식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어 양육 역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혜자 외(2001)는 노년기 동안 손자녀를 돌보면서 조모는 전반적으로 손자녀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즐거움을 느끼고, 책임감 역시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인간의 존재 실현력이 성취된 것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양육 부담과 양육 기쁨을 선정하여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고찰한 결과(최혜지, 2009), 조부모의 양육 부담은 질병 유무, 수리력, 관계의 질에, 양육 기쁨은 일상 생활 기술, 관계의 질, 유희 역량, 재정 상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질병이 있거나, 수리 능력이 높을수록, 양육 부담이 높아지고, 손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양육 부담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조부모의 유희 역량과 재정 상태가 좋을수록, 양육 부담이 감소하였다. 또한 양육 기쁨의 경우 상기한 영향 변인이 많을수록 정적으로 증가하나 재정 상태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현(2009)은 조손 가족 유아의 관점에서 생활을 알아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농촌 지역 조부모-손자녀 가정의 유아를 심층 면담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서 이들이 경험하는 생활은 유아의 조부모와 관련하여 ‘노령의 조부모에 대한 신체적 건강을 걱정하며 유일한 양육자로서 절대적 의존과 사랑하기’, ‘조부모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드러난 무지와 암묵적 무시하기’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들은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손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관심사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참여의 결과로서 여러 변인들을 이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육 활동에 초점을 두어 이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 변인으로 선정하여 연구할 것이다.

## 2. 노인의 생성감

### 가. 생성감의 정의

생성감(generativity)은 Erikson(1963)이 처음 주장한 생애 발달상 개념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픈 욕구(need to be needed)”로 정의하고, “다음 세대에게 책임감있는 부모나 지원자,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베푸는 돌봄(caring)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책임감 있는 시민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람, 지도자 역할 등이 해당된다. 또한 다음 세대에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물이나 결과물을 창조하고 생산해 내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는 생성감을 생식적(procreative) 생성감, 생산적(productive) 생성감과 창조적(creative) 생성감으로 구분하였는데,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강조하여 성인기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Kotre(1984)가 중년기 이후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정립하였는데, 그는 생성감을 “유한성을 초월하려는 생리·문화적 본능”으로 정의하고, 이를 유전자의 전수인 생물학적(biological) 생성감,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어버이로서의(parental) 생성감,

삶의 기술에 대한 전수인 기술적(technical) 생성감, 체계로서의 사회, 전통의 보존 및 발전을 위한 문화적(cultural) 생성감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McAdams와 de St. Aubin(1992)은 7가지 심리사회적 요소들로 이루어진 생성감 모델을 개발하였다. 7가지 요소에는 내적 욕구(inner desire), 문화적 요구(cultural demand),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concern), 신념(belief), 결심(commitment), 활동(action) 그리고 이야기(narration)가 포함된다.

이 중 내적인 욕구는 개인주의적 생성감(agentive generativity) 차원의 불멸성과 공동체적 생성감(communal generativity) 차원의 양육, 즉, 돌봄과 배려의 동기에서 출발한다. 개인주의적 생성감은 생성감의 대상이 단순히 자아(self)의 확장이어서 삶의 관심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으며 죽은 후에까지 자신이 기억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반면 공동체적인 생성감은 생성감의 대상이 타인 그리고 개인보다 더 크고 보다 외적인 경우로서 이러한 사람은 사욕을 버리고 다음 세대에게로 관심의 초점을 돌린다. 이들은 생성감이 부모 역할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전문적 활동이나 자원 봉사, 종교나 정치 참여, 지역사회 활동, 우정, 여가 활동으로까지 표현된다고 제안하였다.

선행 이론에 따르면 개인주의적 생성감 성향이 강한 사람은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가정내의 비공식적인 활동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고, 공동체적 생성감의 비중이 더 많은 사람은 자원 봉사 등 다른 공식적인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본 연구 대상 노인은 세분화된 생성감에 대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양상을 알아보려고 한다.

## 나. 손자녀 양육에 대한 생성감과 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

Erikson(1963)이 생성감을 주요 발달 과업으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는 자신의 삶에 만족과 가치를 부여하는 중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연구로서 Fisher(1995)는 생성감이 성공적인 노화에 기여하며 노년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발달상의 과업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Keyes와 Ryff(1998)는 생성감이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한 결과, 생성감은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였을 뿐 아니라 촉진하여 가장 설명력이 큰 변인이었다. 이은희 외(2004)는 이를 우리나라 노인에게 적용하여 연구하였더니 생성감과 생활 만족도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의 삶에서 생성감은 개인주의적인 경향과 공동체적인 경향으로 구분되어 표출된다. 이것의 표현 정도로서 생성감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Mansfield와 McAdams(1996)에 의하면 생성감이 높은 사람은 생성감이 낮은 사람보다 공동체적인 경향을 훨씬 많이 표현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개인주의적인 경향의 표현은 생성감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생성감이 높은 사람은 상당한 수준으로 두 개의 경향이 통합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타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개인주의적 경향이나 공동체적인 경향 중 하나가 과도하게 강조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생성감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중년기에 생성감을 실현한 성인들은 그 결과로 돌봄이라는 중요한 덕목을 경험하게 되는데 돌봄은 이후의 발달 단계인 노년기까지 이어진다. 이는 노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쓸모있고 중요한 사람이며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에 공헌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생성감 욕구, 생성감 능력에 관한 주관적 경험, 그리고 생성감 성취를 측정하는 연구들은 생성감 욕구는 초기 성인기에 형성되며 생성감에 대한 확신과 능력은 중년기에 절정에 달하고 생성감의 실현 또는 성취는 중년기와 노년기로 갈수록 증가됨을 보여 준다(Peterson & Klohnen, 1995; Peterson & Stewart, 1996).

또 다른 연구(Morfei et al., 2004)는 미혼의 청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모 역할, 직업, 자원 봉사 그리고 여가 활동에 관한 인터뷰를 통해 각 영역에서 나타난 생성감 주제를 개인주의적 생성감과 공동체적 생성감으로 나누어 심리학적 안녕감과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에 비해 보다 공동체적인 생성감을 표현하고 있었으나 어머니의 공동체적인 생성감 활동은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인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성감이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기존의 여러 연구들(김금운·윤가현, 1998; de St. Aubin & McAdams, 1995; Keyes & Ryff, 1998)과 불일치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연구자들은 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삶에서 개인주의적 경향과 공동체적인 경향이 균형을 이루지 못 하고 자신의 삶의 만족보다 자녀를 비롯한 타인의 안녕에 대한 관심이 과도한 탓으로 설명하고 있다.

손자녀 양육과 생성감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으나 한 예로 오경석(2010)은 재미 한인 노인의 생성감 수준에 따라 그들의 손자녀 양육 경험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를

심층 면접과 참여 관찰을 통해 알아보았다. 생성감 수준이 낮은 조부모들은 비자발적 양육 책임, 심한 양육 스트레스,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 불안한 미래, 자기 돌봄의 부재, 사회적 지지의 부재를 보였다. 반면 생성감 수준이 높은 조부모들은 자발적 양육 책임, 역전된 부모 역할에 대한 긍정적 반응, 양육에 대한 보람, 미래에 대한 희망, 자기 돌봄의 존재, 사회적 지지의 존재를 특징으로 하였다. 손자녀 돌봄과 관련하여 생성감을 살펴본 연구는 수적으로 소수일 뿐 아니라 이 연구는 생성감 수준의 적고 낮음을 기준으로 연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적 생성감과 공동체적 생성감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성감 수준과 삶의 여러 가지 적응 지표가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이기는 하나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는 등 일관되지 않으므로 손자녀 양육 활동 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3. 가족의 지지

#### 가. 사회적 지지의 정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예를 들어 Kaplan 외(1977)는 “의지할 수 있고 돌봄과 애정을 보여 주며 가치감을 인식시켜 주는 사람의 존재 또는 이들의 이용 가능성”을 사회적 지지라 하였고, Norbeck 외(1981)는 이를 “사회적 결속을 통하여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지로서 대상자가 배우자,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대인 관계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받는 물질적, 정신적 도움”이라고 정의하였다. 정리하면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고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자원”인 것이다(Cohen & Huberman, 1983).

사회적 지지는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되는데(Cohen & Syme, 1985), 구조로서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망내 구성원들의 숫자 등과 같은 관계들의 존재를 뜻한다. 특히 Cobb(1976)은 노년기일수록 대부분의 사회적 지지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얻어진다고 주장하여 노인에 대한 가족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능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란 개인의 대인 관계가 실제적 도움, 교제와 같은 특정한 기능을 제공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Kaplan 외(1977)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공감이나 이해, 수용 및 존중과 같은 사회정서적 도움과 정보, 가족의 도움 또는 재정적 원조 등의 도구적 원조로 분류하였다. 또한 Krause(1986)는 보다 상세하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을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금전 및 그 외 다른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도구적 지지, 사랑이나 보살핌, 신뢰를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소속감을 제공하는 사회 통합 등 4개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지지원을 가족 구성원으로 제한하며, 기능적 측면에서는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금전적 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나. 손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의 지지와 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

축적된 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가 삶의 적응 과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유양경(2004)은 노인이 지각하는 전체 사회적 지지 중 지지원별로는 가족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지 유형에서는 평가적 지지가 가장 높았고 물질적 지지를 가장 낮게 지각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사기가 높았으며, 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으로부터 받은 물질적 지지였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받는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에서(권인수, 2000) 사회적 지지와 손자녀 돌보기에 대한 부담감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부담감이 낮아졌다. 조손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혜선(2005)은 농촌 지역에서 손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노인의 정서적 고통은 자녀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경우 가장 부정적이라 하여, 연구자는 손자녀의 양육비와 경제적 지원의 잠재적 자원인 가족의 지원이 없고 도시에 비해 사회적 지지망이 체계적이지 않는 농촌의 현실로 인해 정서적 고통이 가중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최혜지(2006)는 조손 가족의 사회적 지지 실태와 사회적 지지가 조부모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조손 가족은 주로 공격적인 지지망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응답자 중 82.3%가 한 가지 활동 이상에 제약이 있을 정도로 조부모의 신체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우울 정도는 평균 27.4로 중등도의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스트레스 요인 중 조부모의 성별, 자녀 수, 가사일 부담이 신체적 건강 상태를 나타

내는 일상 활동 제약의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었고, 월 평균 소득, 손자녀 양육 기간, 자녀 수, 경제적 곤란, 가사일 부담, 사회적 제약이 조부모의 정신 건강을 나타내는 우울 정도의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었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해서는 친구 혹은 이웃으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양적으로 충분하다고 여길수록, 친구 혹은 이웃으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만족할수록, 종교 단체의 지원에 대해 만족할수록, 일상 활동 제약이 유의미하게 덜 한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 혹은 이웃으로부터 받는 지원 유형의 수가 많을수록, 사회복지 기관에서 받는 지원 유형의 수가 많을수록, 우울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정부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만족할수록, 우울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강유진(2011)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손자녀 양육 동기의 대부분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함이었으며, 대다수가 양육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 또한 돌봄 상황 자체가 직접적으로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 차이를 유발하지 않았고, 돌봄 상황의 차이가 가져 온 양육 지각과 자원의 차이가 매개 역할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자원 중 경제 형편과 이웃 도움은 양육 지각을 긍정적으로 높이는 것과 관련되었으며 자녀 지지는 양육 지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등 외적 자원을 강화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가족의 지지 위주로 접근할 것이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자녀가 딸 또는 며느리인가의 관계 여부는 상관없이 이들의 취업으로 인해 주양육자로서 손자녀를 돌본 지 3개월 이상되는 60세 이상의 여성 노인 103명이었다. 조부모와의 긴밀한 상호작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손자녀의 연령은 학령 전으로 한정하였으며, 동거와 별거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였다. 연구 대상은 유의 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는데 우선 유아교육기관의 협조를 얻어 연구 참여에 동의

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아파트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해당되는 노인들을 포함하였으며, 직장인 중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 주는 경우를 소개받아 눈덩이 표집(snowballing)을 이용하여 대상을 확대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 1회 일로 면접하였는데 면접한 120명 중 응답 내용이 부실한 17부를 제외하고 103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연령은 만 60세부터 최고 72세까지로 60대가 86.4%를 차지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65.0세였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좋은 편이다’와 ‘매우 좋은 편이다’가 82.5%로 대다수가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80.6%였는데 이 중 ‘불교(39.8%)’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개신교(28.2%)’의 순이었다.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이 각각 36.9%, 22.3%로 나타났다. 이전 직업으로는 ‘전업 주부(51.5%)’와 ‘자영업(20.4%)’이 많았다. 총 가계 소득은 ‘150~200만원(26.2%)’, ‘200~250만원(24.3%)’, ‘50~100만원(23.3%)’의 순이었고, 주요 소득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소득(44.7%)’과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해서 버는 돈(31.1%)’이라고 응답하였다. 결혼 상태를 살펴보면 ‘기혼(70.9%)’이 가장 많았으며 ‘사별’은 27.2%를 차지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 대상은 학력이나 소득면에서 전국 노인의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 2. 연구 도구

### 가. 노인의 생성감

노인의 생성감 수준은 McAdams와 de St. Aubin(1992)의 ‘로욤라 생성감 척도(Loyola Generativity Scale)’ 12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이는 개인주의적 생성감 6문항, 공동체적 생성감 6문항으로 구분된다.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 중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개인주의적 생성감과 공동체적 생성감 각 6점부터 24점으로 합한 점수가 높을수록 생성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각 .677, .592였다.

## 나. 가족의 지지

가족의 지지 정도는 King 외(1995)가 개발한 ‘근로자를 위한 가족 지지 척도 (Family Support Inventory for Worker)’와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본 연구자가 수정, 제작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정서적 지지에 관한 4문항, 도구적 지지에 관한 4문항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중 선택하게 한다. 문항의 예로서 정서적 지지의 경우 ‘가족은 손자녀 양육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할 때 나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도와 준다’이며, 도구적 지지는 ‘가족은 내가 손자녀 양육 때문에 바쁠 때 집안 일을 대신해 준다’ 등이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영역별로 4점부터 1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전적 지지는 만원 단위로 하여 주관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alpha$ 는 각 .752와 .643이었다.

## 다. 활동 만족도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참여 만족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만족한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로 평균,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다음으로 손자녀 양육 참여 노인의 생성감 및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와 활동 만족도와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를 이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 노인의 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손자녀 양육 활동의 실태

본 연구 문제의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조부모가 참여하는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상황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이들이 손자녀를 양육한 기간은 ‘37~48개월(21.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5~36개월(18.5%)’, ‘49~60개월(15.6%)’의 순이었다. 자녀와 거주 여부는 같은 집에 ‘동거하는 경우’가 53명으로 반 수를 상회하였고(51.5%) 나머지 50명 중 ‘인근 지역에 사는 경우’가 45명으로 대부분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것으

표 1. 손자녀 양육 관련 상황

(N=103)

변인	내용	빈도(%)
양육 기간	12개월 이하	11(10.6)
	13~24개월	9( 8.7)
	25~36개월	19(18.5)
	37~48개월	22(21.4)
	49~60개월	16(15.6)
	61~72개월	11(10.6)
	73~86개월	12(11.7)
	87개월 이상	3( 2.9)
자녀 거주지와의 거리	같은 집에 산다	53(51.5)
	같은 동네에 산다	45(43.7)
	차로 1시간 이상 가는 곳에 따로 산다	3( 2.9)
	먼 지방에 따로 산다	2( 1.9)
1일 평균 양육 시간	4시간 이하	31(30.1)
	5~6시간	42(40.8)
	7~8시간	19(18.5)
	9시간 이상	11(10.6)
양육 수고비 지원	없음	39(37.9)
	10~20만원	21(20.4)
	21~30만원	13(12.6)
	31~50만원	23(22.3)
	51만원 이상	7( 6.8)

로 조사되었다(43.7%).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데 하루에 할애하는 시간은 ‘5~6시간’과 ‘4시간 이하’가 각각 40.8%, 30.1%를 차지하였는데 손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할 경우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조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양육 수고비를 받지 않은 경우는 39명이었으나(37.9%), 받을 경우 ‘31~50만원’이 22.3%로 가장 많았다.

## 2.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손자녀 양육 참여 노인의 생성감과 가족의 지지, 그리고 활동 만족도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

(N=103)

변인	점수 범위	평균(M)	표준 편차(SD)
노인의 생성감			
개인주의적 생성감	6~24점	17.01	2.09
공동체적 생성감	6~24점	15.82	1.81
가족의 지지			
정서적 지지	4~16점	11.25	1.79
도구적 지지	4~16점	10.84	1.65
금전적 지지	0~110만원	23.50	24.72
활동 만족도	1~4점	2.95	.63

본 연구 대상의 생성감은 개인주의적 생성감, 공동체적 생성감이 각 17.0점, 15.8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각 6~24점)와 중간 점수(15점)를 고려해 볼 때,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지지 정도를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M=11.3)가 도구적 지지(M=10.8)보다 다소 높았다. 영역별 중간 점수가 10점임을 감안하면 이들이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중등도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금전적 지지는 자녀에게 받는 수고비 액수를 기재하게 하였는데 월 평균 23만 5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종속 변인인 손자녀 양육의 활동 만족도는 3.0점으로 중간 점



수인 2.5점보다 높아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 해석된다.

### 3. 노인의 생성감 및 가족의 지지와 노인의 활동 만족도와의 관계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손자녀 양육 참여 노인의 생성감과 활동 만족도와의 관계, 그리고 손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의 지지와 활동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손자녀 양육 참여 노인의 생성감을 개인주의적 생성감과 공동체적 생성감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더니, 각각  $r=.407(p<.01)$ ,  $r=.069(n. s.)$ 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참여 노인의 개인주의적 생성감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활동 만족도가 높았으며, 공동체적 생성감도 동일한 경향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손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의 지지를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 금전적 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정서적 지지와 활동 만족도와의 관계는  $r=.224(p<.05)$ , 도구적 지지와의 관계는  $r=.258(p<.01)$ , 그리고 금전적 지지와의 관계는  $r=.446(p<.01)$ 이었다. 다시 말하면 손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가족이 정서적으로나 도구적으로, 또한 금전적으로 지지를 많이 해 줄수록, 참여 노인의 활동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 노인의 생성감 및 가족의 지지와 노인의 활동 만족도와의 관계

(N=103)

변인	r
노인의 생성감	
개인주의적 생성감	.407**
공동체적 생성감	.069
가족의 지지	
정서적 지지	.224*
도구적 지지	.258**
금전적 지지	.446**

\*  $p<.05$    \*\*  $p<.01$

### 4. 노인의 활동 만족도에 대한 생성감과 지지의 상대적인 영향력

세 번째 연구 문제를 위해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에 적합한 자료인가를 파악하고자

독립 변인간 상호 상관 계수를 산출하여 다중공선성을 점검하였다. 상관 계수는  $r=-.243^{**}$ 부터  $r=.484^{***}$ 였으며, 그 외 Eigen 값과 Durbin-Watson 계수는 각각 8.154, 1.747이었다. Eigen 값이 15이하이고, Durbin-Watson 계수가 2에 근접하였으며, VIF는 1.498로 2이하여서 회귀 분석에 적절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제 1단계에서는 양육 상황 변인과 참여 노인의 인구학적 변인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노인의 생성감 변인을, 3단계에서는 손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의 지지 변인을 추가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손자녀 양육 참여 노인의 활동 만족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N=103)

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3단계 $\beta$
양육 기간	.119	.057	.133
참여 노인의 건강 상태	.033	-.006	.036
참여 노인의 경제 상태	.163	.069	.207*
노인의 생성감			
개인주의적 생성감		.453***	.202+
공동체적 생성감		-.152	-.128
가족의 지지			
정서적 지지			-.016
도구적 지지			.224*
금전적 지지			.456***
$\Delta R^2$	.04	.15***	.19***
$R^2$		.19***	.38***
F	1.409	4.379**	14.619***

+  $p<.10$ , \*\*  $p<.05$ , \*\*\*  $p<.001$

회귀 분석 결과, 1단계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활동 만족도에 대한 양육 상황 변인과 참여 노인의 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은 4%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n. s.). 2단계에서는 노인의 생성감 변인이 추가되어 15%의 설명력이 증가되었고 총 19%를 설명하였다( $p<.001$ ). 이 중 개인주의적 생성감( $\beta=.453$ ,  $p<.001$ )은 참여 노인의 활동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개인주의적 생성감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 노인의 활동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 3단계에서 가족의 지지와 관련된 변인이 첨가됨으로써 19%의 변량이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p < .001$ ), 전체적으로는 38%의 변량이 설명되었다( $p < .001$ ). 개인주의적 생성감( $\beta = .202$ ,  $p < .10$ )은 여전히 유의한 변인으로 남아 있었으며, 도구적 지지( $\beta = .224$ ,  $p < .05$ )와 금전적 지지( $\beta = .456$ ,  $p < .001$ )는 조부모의 활동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 노인의 경제적 상태( $\beta = .207$ ,  $p < .05$ )는 새로운 영향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다시 말하면, 노인의 경제적 상태가 양호할수록, 개인주의적 생성감이 강할수록, 가족으로부터 도구적 지지와 금전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노인의 활동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사적 영역에서 행해지던 여성의 가정내 돌봄 노동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의 활동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우선 양육 참여 노인의 생성감 수준은 중등 이상으로 나타나 생성감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돌봄의 활동에 더 많이 관여한다는 선행 연구(오경석, 2010)와 일치하였다. 특히 개인주의적 생성감 수준이 공동체적 생성감 수준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생성감 중에서도 개인주의적 생성감은 생성감의 대상이 자아의 확장으로 삶의 주요 관심사가 자신과 관련되고, 공동체적인 생성감이 강한 경우는 대상 면에서 타인이나 외적인 경우로 발전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McAdams & de St. Aubin, 1992) 해석 가능하다. 본 연구 대상자는 전자의 수준이 더 높았으며 따라서 자기 혈육의 안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양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들이 후자의 생성감 수준이 더 높고 여건이 되었다면 외부의 다른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정서적 지지나 도구적 지지 모두 중간 이상으로 받고 있었다. 사회교환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녀를 부모가 대신 양육해 줌으로 해서 직업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등의 혜택, 즉, 보상이 있으므로 비용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중 도구적인 지지가 정서적 지지보다 다소 적었던 이유로는 자녀들이 취업을 이유로 부모가 대신하여 양육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도구적 지지를 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이에 금전적 지지의 예로 수고비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받는 경우는 평균 23만 5천으로 조사되어 자녀가 제공하는 도구적 지지의 부족분을 금전적 지지로 보완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활동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 대상자들이 자녀의 가족 해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손자녀 양육 상황에 관여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가족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활동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을 파악하기 전에 주요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더니 생성감 및 가족의 지지와 양육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정적인 관계였다. 생성감 중 공동체적인 생성감 변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생성감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활동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안녕감이나 만족도 등으로 측정 변인이 일부 상이하기는 하나 긍정적인 관계임을 보여 준 선행 연구들(이은희 외, 2004; de St. Aubin & McAdams, 1995; Keyes & Ryff, 1998)과 일관된 것이다. 또한 손자녀 양육에 대해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참여 결과가 양호하였던 연구들(강유진, 2011; 권인수, 2000; 최혜지, 2006)과도 동일한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육 활동 만족도를 설명하는 최종 변인은 노인의 경제적 상태, 개인주의적 생성감과 가족의 도구적 지지, 금전적 지지였다. 환언하면, 참여 노인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울수록, 개인주의적 생성감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이 도구적 지지와 금전적 지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의 활동 만족도가 높았다.

노인의 경제적인 수준이 풍족할수록 활동 만족도도 높았던 것은 경제력이 없는 경우 양육 역할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서병선(1995)의 연구와 같은 논리이다. 또한 최혜지(2009)의 연구에서 재정 상태와 양육 부담이 반비례하였다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연구 대상의 특성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조손 가족이 아닌 자녀의 취업으로 인해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이었으므로 경제적 궁핍을 경험한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여건이 되므로 양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고 양육 수고비를 받는 경우 소득원에 포함되어 재정 상태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상태와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정적인 관계로 보고되는데 삶의 만족도의 하위 구인이 될 수 있는 양육 역할 만족도도 같은 결과이기 쉽다.

생성감의 세부 변인 중 공동체적 생성감과 달리 개인주의적 생성감만이 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게 하고픈 욕구(Erikson, 1963)”를 타인이나 불특정 다수보다는 우선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사람에게 베풀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Kotre(1984)가 유형화한 생성감 중 기술적 생성감이나 문화적 생성감보다 생물학적 생성감이나 어버이로서의 생성감이 더 많이 발현된 경우일 것이다. 그가 생성감을 “유한성을 넘어서려는 생리-문화 본능”이라고 정의한 것과 같이 손자녀는 생애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조부모에게 일종의 자기 유산(legacy)이 되므로 이를 보존하고 지속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조손 가족은 손자녀 양육에 대해 선택의 여지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강하지만 일반 가족의 경우에는 생성감 정도에 따라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활동 만족도에 동일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가족의 지지면에서도 정서적 지지를 제외한 도구적 지지와 금전적 지지가 유의했던 것은 양육의 노동 강도를 고려해야 한다. 영유아를 돌보는 것은 신체적으로 많은 노동력과 에너지가 요구되는 일이므로(Butron & Devries, 1992; Hayslip et al., 1998; Minkler et al., 1992),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만족도를 고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보다는 실질적으로 양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지가 조부모에게는 더욱 절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가 시간적인 제약으로 도구적인 지지를 많이 제공하지는 못 하여도 미약하나마 이들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금전적 지지로서 양육에 대한 수고비는 소득원이 한정되고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 어려운 조부모에게 매우 요긴한 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다음과 같이 제언이 가능하다.

첫째, 노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생성감이 발현되어 접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산적 활동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다. 노인의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내적 동인으로서 생성감 변인이 대표적인데 본 연구 대상은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노인으로 국한되었고 이들은 개인주의적 생성감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관심 주제였던 손자녀 양육은 후 세대를 돌본다는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혈육 뿐 아니라 여러 가지의 돌봄 형태로 세분화될 수 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교육형이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 자신이 미처 자각하지 못 하였던 잠재된 생성감을 표출하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 지지의 중요성이다. 일반적으로도 노년기에 가족의 중요성은 이점이 없으며 이 시기의 주요 지지원으로 가족이 언급되는데 특히 손자녀를 돌보아 주는 부모에게는 보다 많은 지지를 제공하는데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구적 지지와 금전적 지지가 활동 만족도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것처럼 부모-자녀간일지라도 정서적 지지 외에 양육 활동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시적인 지지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 중 수고비를 받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지만 금전적인 보상이 있었다고 해도 타인에게 양육을 맡겼을 경우 지불하는 비용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대부분이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중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에 대한 평가가 인색한 것과 같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 역시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처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이 연간 170억에서 290억의 가치에 이른다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Bass & Caro, 1996). 최근 전국의 모든 0~2세 아동에게 무상으로 보육을 실시한다는 정책 발표로 인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영유아들을 무분별하게 보육 기관에 재원시키려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적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내에서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아동양육수당 등 이에 상응하는 지원 정책을 보완하여 보육 요구를 분산시켜야 한다.

넷째,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양육을 세대간 교류 증진의 기회로 이용하는 것이다. 독거 노인 가구의 증가를 볼 때 조부모와 손자녀가 공유하는 시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중간에 끼어 있는 부모 세대와의 관계도 돈독해 질 수 있다. 이들이 반드시 같은 주거 공간에 살지는 않더라도 손자녀를 통해 접촉 빈도가 증가하고 노인의 고독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보고되듯이(서병선, 1995; 조윤주, 2009), 손자녀 양육이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활동이나 노부모에게 생활의 활기와 사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노인의 자아 존중감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자녀나 손자녀 입장에서 노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을수록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데도 기초적인 토대가 되므로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손자녀 양육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가 전국 단위의 표집이 아니어서 결과의 일반화에 유의하여야 하지만 기존의 조손 가족 연구들과 달리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라는 점, 그리고 지지 등 외적인

영향 변인을 위주로 실시된 선행 연구들을 포괄하여 생성감이라는 노인 자신의 내적 변인을 포함하였으며,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양육 활동의 만족도에 중점을 두어 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결과를 제시하였다고 사료된다. 또한 그동안 간과되었던 사적 영역의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와 이를 생산적 노화와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조운주는 연세대학교에서 아동·가족학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생산적 노화와 다문화 가족이다.

(E-mail: biju0501@naver.com)

## 참고문헌

---

- 강유진(2011). 손자녀 돌봄과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 돌봄 상황, 양육 지각, 자원의 상호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1), pp.73-97.
- 권인수(2000).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아동간호학회지, 6(2), pp.212-223.
- 김금운, 윤가현(1998). 중년기 직장 여성의 다중 역할 특성과 생활 만족도의 관계, 생성감의 매개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1), pp.88-102.
- 김혜선(2005). 농촌과 도시 지역 손자녀를 전담 양육하는 저소득층 조부모의 정서적 고통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8(2), pp.341-378.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간호학과, 연세대학교, 서울.
- 서병선(1995). 조모의 손자녀 대리 양육 수행과 만족도 연구 - 취업모를 자녀로 둔 여성 노인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가정관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서현(2009). 조부모-손자녀 가정 유아의 생활에 관한 연구 -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56(3), pp.1-30.
- 오경석(2010). 재미 한인 노인의 생성감과 손자녀 양육 경험.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1), pp.1-21.
- 유양경(2004). 재가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사기. 대한간호학회지, 34(2), pp.297-306.
- 이은희, 김금운, 한규석, 주리에(2004). 노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생성감의 역할. 한국노년학, 24(3), pp.131-152.
- 조선일보(2012.2.28). 르포,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현장. 조선일보, D3면.
- 조운주(2009). 성인 손자녀의 조부모 동거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pp.293-303.
- 최혜지(2006). 조손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실태와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9(2), pp.115-142.
- 최혜지(2009). 조손 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이해 - Sen의 인간 존재 실현력 패러다임을 통한 접근. 한국인구학, 32(3), pp.103-126.
- 한국노동연구원(2011). 2011. 통계청 콘퍼런스 자료집.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한혜자, 류창희, 이영세(2001). 조부모가 제공하는 도움과 이에 따른 만족도 노인복지연구, 11(1), pp.195-211.
- Aquino, J. A., Russell, D. W., Cutrona, C. E., Altmaier, E. M.(1996). Employment statu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pp.480-489.
- Bass, S. A., Caro, F. G.(1996). The economic value of grandparent assistance. *Generations*, 20(1), pp.29-33.
- Butron, L., Devries, C.(1992). Challenges and rewards: African American grandparents as surrogate parents. *Generations*, 16(3), pp.51-55.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pp.300-314.
- Cohen, S., Huberman, H.(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ing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pp.99-125.
- Cohen, S., Syme, S. L.(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and health*. New York: Academic Press.
- de St. Aubin, E., McAdams, D. P.(1995). The relations of generative concern and generative action to personality traits, satisfaction/happiness with life, and ego develop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2, pp.99-112.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isher, B.(1995). Successful aging, life satisfaction, and generativity in later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1, pp.239-250.
- Hayslip, B., Shore, J., Henerson, C. E., Lambert, P. L.(1998). Custodial grandparenting and the impact of grandchildren with problems on role satisfaction and role meaning. *Journal of Gerontology*, 53(3), pp.164-173.
- Jendrick, M.(1994).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Circumstances and decisions. *The Gerontologist*, 34(2), pp.206-216.
- Kaplan, B. H., Cassel, J. C., Gore, S.(1977).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15, pp.47-58.
- Keyes, C. M., Ryff, C. D.(1998). Generativity in adult lives: Social structural

- contours and quality of life consequences. In McAdams, D. P., & de St. Aubin, E. (Eds). *Generativity and adult development*(pp.227-264).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ing, L. A., Mattimore, L. K., King, D. W., Adams, G. A.(1995). Family support inventory for workers: A new measur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amily member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s*, 16(3), pp.235-258.
- Kivett, V. R.(1985). Grandfathers and grandchildren: Pattern of association, helping, and psychological closeness. *Family Relations*, 34, pp.565-571.
- Kotre, J.(1984). *Outliving the Self: Generativity and the interpretation of liv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rause, N.(1986). Social support, stress, and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1(4), pp.512-529.
- Mansfield, E. D., McAdams, D. P.(1996). Generativity and themes of agency and communion in adult autobiograph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pp.721-731.
- McAdams, D. P., de St. Aubin, E.(1992). A theory of generativity and its assessment through self-report, behavioral acts, and narrative themes in autobi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pp.1003-1015.
- Minkler M., Roe, K. M.(1996). Grandparents as surrogate parents. *Generations*, 20(1), pp.34-38.
- Minker, M., Roe, K. M., Price, M.(1992). The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crack cocaine epidemic. *The Gerontologist*, 32(6), pp.752-761.
- Morfei, M., Hooker, K., Carpenter, J., Mix, C., Blakeley, E.(2004). Agentic and communal generative behavior in four areas of adult life: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1, pp.55-58.
- Neugarten, B. L., Weinstein, K.(1968). The changing American grandparents. In

- Neugarten, B. L. (Ed).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orbeck, F. S., Lindsey, A. M., Carrieri, V. L.(1981).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social support. *Nursing Research*, 30(5), pp.264-269.
- Peterson, B. E., Klohnen, A.(1995). Realization of generativity in two samples of women at midlife. *Psychology and Aging*, 10, pp.20-29.
- Peterson, B. E., Stewart, A. J.(1996). Antecedents and contexts of generativity motivation at midlife. *Psychology and Aging*, 11, pp.21-33.
- Robertson, J. F.(1977). Grandmotherhood: A study of role conce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pp.165-174.

#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Grandchild Rearing Activities:**

Focused on the Elders' Generativity  
and Family Support

**Cho, Yoon-Joo**

(Sungshin Woman's University)

---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a general trend of the elders' generativity, family support and analyzing the variables which give effects to their satisfaction on grandchild rearing activities. Research subjects were 103 grandmothers those who were the custodial caregivers for at least one grandchild.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through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from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results were firstly, agentic and communal generativity of the elderly were higher than median score. Furthermore, emotional support, instrumental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by the family members were higher than the average score of family support. Secondly, agentic generativ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grandmothers' satisfaction in activities. Also, emotional, instrumental and material support showed the same tendencies. Finall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vealed that the variables explaining the satisfaction of caring for grandchildren were the elder's economic status and agentic generativity, instrumental and material support by family members.

---

**Keywords:** Grandchild Rearing, Elder's Generativity, Family Support, Activity Satisfaction